

Safety, Global Standard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

넥상스코리아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에 위치하고 있는 넥상스코리아는 2001년 대성전선과 전력케이블 전문 기업인 넥상스그룹이 합병하면서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주요생산품으로는 전력케이블, 동통신케이블, 광통신케이블 및 자동차전선을 생산하고 있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근로자의 건강은 물론 친환경제품생산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고 있다.

취재 | 글 임재근 기자



확고한 환경안전보건 경영방침으로 무재해 사업장 구축..

넥상스는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기업으로 세계 30개국에 80여개의 공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그 중 넥상스코리아는 2001년 대성전선과 합병을 통하여 설립, 주요 생산품은 전력케이블과, 동동신케이블 및 자동차전선 등이 있다. 넥상스코리아는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안전성을 보장하는 제품과 신규 아이템 개발을 위한 에너지, 초전도 선재 개발이라는 목표로 1993년부터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력공사 등과 공동으로 금속계 초전도선재(NbTi)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핵융합용 도체(Nb3Sn)를 개발하였다. 2005년 통신케이블 부문 품질인증시스템 취득과 2006년 환경인증시스템 인증, 2008년 제11회 한국전기문화대상 동탑산업훈장 수훈, 2008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선정, 2009년 소방시설관리우수업체 인증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사고예방은 5S활동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해 오던 작업장 5S활동은 2008년부터 넥상스 본사에서 직접 평가단을 파견하면서부 시스템에 갖추어 실시하게 되었다. 넥상스는 5S활동의 수준을 0~5단계로 규정해 놓고 있는데 넥상스코리아는 3.5단계로 올 6월말까지 최고 단계인 5단계를 목표로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장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곳에서 실시하고 있는 5S활동은 어느 기업에서 실시되는 5S활동과 조금 다른 면이 보이는데 차이는 바로 제안제도와 연계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팀의 각 반에서의 5S활동들은 규정된 양식을 통해 문서로 작성되며 이는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을 제안하는 형식을 띄고 있다. 제안된 사례 중 우수 사례들(Best Practice)은 그룹웨어를 통해 전 세계 80개 공장과 공유함으로써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5S활동은 Visual Management 즉 “눈으로 보이는 관리, 안전”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깨끗한 작업환경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한다.

매년 현장 내 위험을 개선...

매년 현장 내 위험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연중 내 진행되는 위험성평가는 연초, 전 근로자 인터뷰를 통하여 작업 전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회의를 통해 개선 우선순위 선정 후, 해당 부서는 이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고 개선을 실행한다. 간단히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처리하고 장기간 비용투자와 인력투입이 필요한 장비교체, 작업방법 교체 등의 건은 세부계획과 관련 팀과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결정된 개선사항 중에는 중량물 취급에 따른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예방으로 턴테이블설치, 거대한 보빈을 이동시키기 위해 이동식 대차의 사용, 작업리프트 설치, 소음감소를 위한 설비 개선 등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이 매년 억 대가 넘는다고 한다. 이렇듯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이 발굴되면 그 위험을



넥상스코리아 석우징 상무

선진국일수록 품질과 생산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저희 넥상스코리아에서는 SQEC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즉 안전, 품질, 환경을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이니셜의 순서에서 알 수 있듯이 안전을 최우선 실천 과제로 선정하여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제품안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책임자의 확고한 안전의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리자에게는 품질만 보일 것이고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리자에게는 안전만 보일 것입니다. 어떤 것에 가치를 더 두느냐에 따라 그 기업의 운명은 결정될 것입니다. 저희 넥상스코리아는 안전을 가장 중요한 경영이념으로 삼아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제거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전사적 차원의 투자와 노력이 기울여 지고 있는 것이다.

각 공정에 따른 위험요소와 이를 위한 대책

넥상스코리아의 주 생산품은 전력케이블로 제조공정은 크게 신선, 연선, 절연, 연합, 피복 공정 등으로(5가지로) 나뉘어 진다. 신선 공정의 경우 소음발생으로 인한 청력 손실의 위험이 있고, 연선 공정은 회전체에 의한 말림 및 충돌 위험, 호이스트의 사용으로 낙하 및 충돌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절연 공정의 경우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요통 및 근골격계질환 위험이 있고, 연합 공정은 호이스트 사용에 따른 낙하 및 충돌 위험, 피복 공정은 칼 사용에 따른 베임의 위험이 존재한다. 소음발생에 따른 위험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1억 원을 투자하여 소음저감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공사는 2012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절연과 피복 공정에서 중량물 취급에 따른 위험 개선을 위해 작업전 안전체조를 실시하고 있으며, 턴테이블과 이동식 대차의 사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고 있다. 연선과 연합공정의 회전체로 인한 위험은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내 모든 회전체에 안전덮개를 설치하였다. 또한 지게차 및 트럭과의 충돌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장 내 보행자 통로를 구획하여 보행 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넥상스코리아는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휴게실, 체력단련실을 운영함으로써 편안한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안전화 소독기를 설치하여 개인위생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또 분기별 1회 실시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전 임직원이 함께하는 분위기 조성해 나가고 있다. 이런 함께하는 행사는 관리자와 근로자 간 다양한 루트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안전뿐 아니라 경영 전반에 걸쳐 시너지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넥상스코리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목표로 안전한 일터 조성은 물론 일할 만 하는 직장 분위기 건설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

